



동학농민혁명의 전국화
 세계화 그리고 미래화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 특별전

전시기간
 2014. 8. 19(화)~12. 31(수)

장 소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기획전시실

주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2014년은 동학농민혁명기념
 1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2014. WINTER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공모 당선작



겨울꽃

2014 겨울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오통절목 伍統節目

1894년 12월에 전라도 관찰사가 도내에 배포한 오통절목이다. 오통절목이란 다섯 집을 1통으로 묶어 호구조사, 범죄자 색출, 세금징수, 부역동원, 인보의 자치조직 구성 등에 사용하고자 작성된 문서다. 당시에 오통절목이 전라도에 배포된 것은 동학농민혁명에 가담한 자들을 감시하고 색출하기 위한 이유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CONTENTS 2014 겨울, 18호

02 2015

05

동학농민혁명 제120주년 국제학술대회

08

정의화 국회의장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방문

10

동학에서 미래를 배우다

12

1 !
동학농민혁명부터 독립자금 모금운동까지
- 참여자 김두민의 증손 김생원

16

2
우리 모두의 염원이 담긴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교수 조경진

18

전주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1

22

항해도 지역 동학농민군 지도자 최유현
- 성균관대학교 교수 배항섭



24

사발동문의 진실회복을 위한 제언提言
- 중앙대학교 前학원교수 김수호

26

구수내와 개갑장터의 들꽃

28

재단소식 / 주요사업안내 / 행사 알림

30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 임시 이사회 개최 외

38

웹진 '녹두꽃' 독자원고 모집안내 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식지 <녹두꽃> 2014년 겨울호(18호)

발행일 2014년 12월 31일

발행인 김대곤

발행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전화 063.538.2896 팩스 063.538.2893

이메일 1894@1894.or.kr 홈페이지 www.1894.or.kr

제작 한솔디자인

본문에 실린 외부 집필자의 글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공식적 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은 지났지만, 작년 한해 쌓아둔 기반을 통해 전국으로, 나아가 세계로 동학농민혁명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들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단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894년 이후 두 번째 갑오년이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해 뜻 깊은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보내기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많은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선양에 여념이 없으셨던 동학농민혁명 가족 여러분과, 120주년 기념대회를 위해 재단과 동고동락하신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와 천도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5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과 기쁨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제2기 집행부가 재단 운영을 시작한 지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미숙했던 점도,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했던 면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모두가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선양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후회 없이 매진했음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120주년은 지나갔지만, 금년도 또한 특별한 해라는 마음가짐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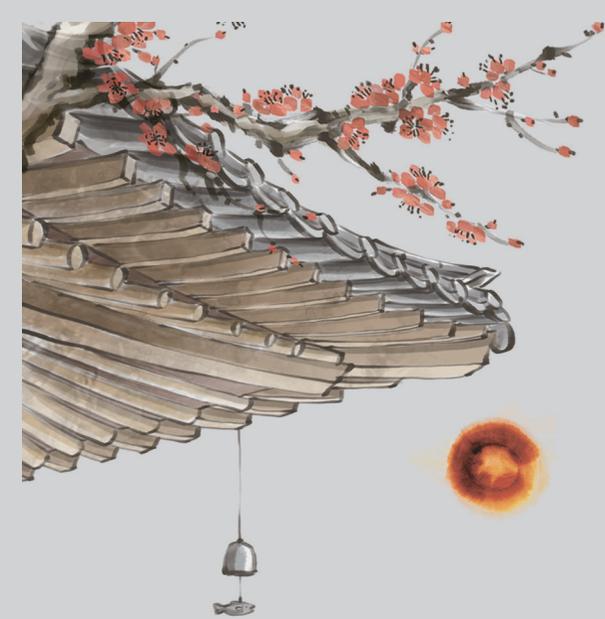
먼저 지난해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맞이해 저희 재단에서 진행했던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대회 기념식을 서울시청에서 개최했습니다.

지난 기념대회는 처음으로 기념재단과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 천도교가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개최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제120주년 기념식에는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국무총리 치사 대독), 박원순 서울시장, 송하진 전라북도 지사 등 여러 귀빈들이 참석해 축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군을 토벌했던 일본군 후손들이 기념식에 참석해 화해를 구하는 만남의 자리가 펼쳐졌습니다.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맞아 제작한 동학농민혁명 기념가인 '동학농민혁명의 노래'가 그란데오페라단의 합창을 통해 공식적으로 처음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기념식 이후에는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원, 기념사업회 관계자, 천도

교 교인들이 함께 서울시청에서 국립중앙박물관 앞 광장까지 만장기 행렬을 이어갔고, 국립중앙박물관 앞 광장에서 식후공연과 함께 서울시민들이 참여한 체험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동학농민혁명, 평화·화해·상생의 시대를 열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는 한·중·일 3국의 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동학농민혁명에만 몰두해온 그동안의 연구경향에서 벗어나 청일전쟁과 동학농민혁명과의 합치적 관점에 대해 토론해 보며 동아시아의 미래를, 나아가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길을 조명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의 본격적인 조성에 앞서 설계공모를 실시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의 설계공모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와 전개과정을 대중에게 널리 알릴 수 있고, 추모 및 기념, 교육과 연구 등 다양한 성격을 지닌 차별화된 기념공원의 설립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공모를 통해 접수된 11개의 공모작을 심사한 결과, '땅의 기억을 환기'한다는 주제를 내세운 동심원조경기술사무소, 우리동인건축의 공모작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특별전 '동학농민혁명의 전국화·미래화·세계화'를 개최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재평가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본래의 의미와 가치가 한층 또렷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전시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과 선양사업의 전국화, 대한민국 대표 정신으로서의 세계화,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노력을 통해 결실을 맺는 미래를 함께 그려보고자 합니다. 이번 특별전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미래가치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謹賀新年

올해부터는 재단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건립이 시작될 것입니다. 작년 설계공모를 통해 선정된 당선작을 토대로 5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7월경 시공업체가 선정되면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이 더 많은 국민들과 학생들에게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선양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며, 동학농민혁명의 위상을 높이고 그 뜻을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는 배움과 홍보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관계자들의 오랜 숙원인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제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화두로 떠올랐던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은 오랜 기간 논의되었음에도 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상생정신을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27일 대전에서 기념일 제정 절차 등을 논의한 바 있으나, 합의점을 찾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과 협력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은 지났지만, 작년 한해 쌓아둔 기반을 통해 전국으로, 나아가 세계로 동학농민혁명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들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단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녹두꽃 독자여러분 모두 힘찬 기운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김대곤

동학농민혁명 제120주년 국제학술대회

제120주년 국제학술대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김대곤)은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즉, 2주갑이 되는 해를 맞이하여 '동학농민혁명 평화·화해·상생의 시대를 열다'를 주제로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소강당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동 달에 열렸던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대회의 연장선상에서 기념재단과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회장 김석태), 천도교(교령 박남수)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한·중·일 삼국의 학자들이 참여하여 동학농민혁명에만 몰두하던 지금까지의 연구경향에서 벗어나 청일전쟁까지 학술의 영역을 확장함과 동시에 동아시아의 미래를 조망해보는 자리가 되었다.

국제학술대회는 10월 28일(화)과 29일(수) 이틀에 걸쳐 열렸으며, 첫째 날인 28일에는 김대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의 대회사, 박남수 천도교 교령의 기념사, 김석태 전국동학농민혁명 유족회장의 환영사,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축사로 문을 열었

제120주년 국제학술대회

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의 저명한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동아시아 삼국의 미래를 논할 수 있다는 것은 획기적인 발전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지평을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전했다.

이어서 이이화 前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의 ‘동학농민혁명은 기층민의 변혁운동’, 치원지에 중국감오전쟁박물관장의 ‘동학농민혁명과 중일감오전쟁이 국제정세에 끼친 영향’, 이노우에 가츠오 일본 홋카이도 대학교 교수의 ‘일본군의 동학농민 섬멸작전에 대한 조사로부터’를 주제로 기조강연이 이어졌다.

기조강연 이후 본격적인 학술대회가 시작되어 제1부로 ‘동학농민혁명-청일전쟁의 전개와 동아시아 세계의 변동’을 주제로 설정하여 이병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의 사회로 미야지마 히로시 성균관대학교 교수의 ‘근대 동아시아의 정세와 동학농민혁명-청일전쟁’, 왕지화 중국감오전쟁박물관의 ‘1875년~1894년 중국의 조성정책 및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정책’, 최덕수 고려대학교 교수의 ‘1893년 교조신원운동기 서구 열강의 동학인식’, 조재곤 서강대학교 교수의 ‘청일전쟁의 전개와 조선의 변화’학술발표가 이어졌다. 발표가 끝난 후 신영우 충북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발표내용에 대해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함께 종합토론을 벌였으며, 이를 끝으로 국제학술대회 첫째 날 일정이 종료되었다.

이튿날인 29일에는 강효숙 원광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동학과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주제로 제2부 학술대회가 열려 성해영 서울대학교 교수의 ‘동학 창도의 종교사적 의의’, 임형진 경희대학교 교수의 ‘동학의 개혁사상과 통일이념’, 박명구 원광대학교 교수의 ‘동학 접포조직과 동학농민혁명’, 성주현 청암대학교 교수의 ‘동학농민혁명의 근대사적 의미’에 대한 학술발표가 진행되었



으며, 이후 조광 고려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중식 이후 동학농민혁명의 미래화를 중점으로 ‘동학농민혁명과 동아시아 세계의 미래’를 주제로 학술대회의 마지막인 제3부가 이어져 이병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의 사회로 윤석산 한양대학교 교수의 ‘상생과 조화의 정신, 동학농민혁명’, 짙티에바오 중국태평천국역사박물관의 ‘태평천국운동과 동학농민혁명으로 본 동아시아의 미래’, 조경달 일본 치바대학교 교수의 ‘감오농민전쟁의 논리와 비교사적 위상’, 배항섭 고려대학교 교수의 ‘19세기 동아시아 민중운동의 지향과 행동’에 대해 학술발표가 이어졌으며, 이영호 인하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3부의 발표에 대한 종합토론을 마지막으로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가 종료되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동아시아의 근대사에 빼놓을 수 없는 대사건이었던 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쟁을 한·중·일 삼국의 석학들이 서로의 관점을 통해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동아시아의 근대사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자리가 되었다. 더불어 현재와 매우 유사한 형태의 120년 전 동아시아의 정세에 대해 논의해보며 현재를 분석하고 크게는 동아시아가, 가까이는 우리민족이 나아가야 할 기준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동학농민혁명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한 세계사적 위상을 가진 혁명이었음을, 그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위해 일어났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지향했던 목표가 ‘평화와 화해, 그리고 상생’이었음을 삼국 학자들의 논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정의화 국회의장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방문

동학농민혁명기념일 제정을 위하여 노력 하겠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하 정 의장)은 지난 11월 29일(토)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을 방문했다. 정 의장은 지난 11월 10일(월) 송하진 도지사에게 전라북도의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을 수여받는 등 전라북도와 동학농민혁명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왔다. 정 의장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잘못된 역사인식에서 벗어나 새롭게 동학농민혁명이 재조명되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으며 이를 위해 직접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다. 방문 당일 정 의장은 순창의 전봉준 장군 피체지로부터 유적지 답사를 시작하여 동학농민혁명 발발의 원인이 된 조병갑이 부임하였던 정읍시 고부면 고부관아터를 방문했다. 유성엽 국회의원은 이곳에서 정 의장에게 고부관아 복원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방문한 정 의장은 방문록에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을 위하여 노력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긴 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주요현안보고회에 참여하

여 재단의 현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보고회 참석자들은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동학농민혁명특별법 개정,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문제 등을 거론하여 이에 대해 논의했다. 정 의장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에 대해 “원활한 선양사업을 위해 하루빨리 기념일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은 국민들이 동학농민혁명의 의의와 자긍심을 제대로 알고 느낄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위주의 조성이 돼야 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청소년들이 방문해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전북도와 정부, 16개 시·도 교육청을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젊은 층인 20대와 30대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여 이곳에 꼭 다녀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과거지향적인 시각을 버리고 젊은 사람들 시각에 맞는 미래지향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 의장은 주요현안보고회 이후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마저 돌아본 후, 구민사로 이동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선열들의 위패 앞에 향과 함께 묵념을 올렸다. 이후 전봉준 장군 고택을 방문하고 정읍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한 정 의장은 부안의 백산성으로 이동했다. 정 의장은 백산성에 올라 유적지를 둘러본 후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4.19혁명과 광주민주화항쟁을 거쳐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하는데 밀알 역할을 한 부분이 확실히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를 마무리하며 “젊은이들에게 우리 선조들이 강하고 아름다운 정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은 평등 민족 자조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이를 마음속으로 품고 자라면서 긍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젊은이들에게 우리 선조들이 강하고 아름다운 정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은 평등 민족 자조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이를 마음속으로 품고 자라면서 긍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동학에서 미래를 배우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백승중

지난 4주 동안 나는 서울 영등포에 있는 ‘하자센터’에서 연거푸 동학 강의를 하였다. 젊은 시절부터 동학 연구를 꿈만 꾸었지, 정작 제대로 공부해본 적이 없는 나다. 나의 선부른 강의는 동학에서 미래를 배우자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었는데, 청중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뜨거웠다. 가르치는 것이 내게는 곧 배우는 일이었다. 기쁜 일이다.

먼저 우리는 동학의 탄생을 이야기하였다. <정감록>으로 대표되는 조선후기 예언문화의 전통 위에서 동학이라는 위대한 사상의 꽃이 피었다. 제1강은 그 긴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았다. 나는 특히 ‘비밀결사’의 전통에 주목하였다. ‘비밀결사’는 18세기 초반 서북 지방의 평민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결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점차 그것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신기하게도 ‘비밀결사’는 천주교 신앙집단과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 동안 나는 <정감록>을 연구하며, 바로 그 ‘비밀결사’의 성장에 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럼 동학의 사상적 본질은 무엇인가? 제2강은 이것을 되짚어보는 시간이었다.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격이었다. 그래도 약간의 수확은 있었다. 이 강의에서 나는 동학을 ‘자주적 근대화’를 위한 노력이라고 정의

하였다. 이러한 정의 자체는 새로운 것이 없다. 하지만 그에 대한 나의 해석은 좀 달라졌다. 동학의 선구자들은 서구적 의미의 산업화 또는 인간중심의 시민 사회 건설을 목표로 삼지 않았다. 동학은 서구적 근대화와는 비교될 수 없는, 본질적인 ‘관계의 질적 전환’을 꾀했다.

우선 동학이 추구한 ‘자주적 근대화’는 산업화를 앞세운 서구의 제국주의를 거부하는 것이었다. 또한 동학 사상은 근대 서구의 계몽 사상가들이 주창한 자유와 평등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동학은 19세기부터 서구를 휩쓴 인종우월주의나 국가주의 같이 협소하고 편협한 사상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점은 최시형에게 뚜렷이 드러났다. 그는 인간중심에서 멀찌감치 벗어났다. 그가 ‘이천식천’(以天食天)을 설파했을 때, 인간과 우주만물은 위도 아래도, 지배도 소유도 없이 하나의 ‘생태적 질서’를 구성하는 동등한 구성인자였다. 요컨대 최제우의 ‘시천주’(侍天主)에서부터 시작해, 최시형의 ‘사인여천’(事人如天)을 거쳐, 손병희의 ‘인내천’(人乃天)으로 이어진 동학의 사상적 계보는 흔히 서구에서 말하는 시민사회의 인간평등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다. 동학이 추구한 ‘관계의 질적 전환’. 이것을 요셋말로 하면 ‘생태적 전환’(ecological

turn)이라고 표현해야 맞을 성 싶다. 모든 개체의 고유한 가치와 평등을 인정하고, 그러한 토대 위에서 만물의 평화로운 공존공생을 추구하는 새로운 가치란 말이다. 동학에서 말하는 ‘후천개벽’(後天開闢)은 서구문명 따라잡기가 아니라, 우주적 차원의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동학이 새 질서를 완성하지는 못했다. 그들은 19세기말 이미 제국주의의 광풍에 휘말린 서구열강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막아낼 수 없었다. 나의 세 번째 동학강의는 그 문제를 다루었다. 1894년에 크게 일어난 갑오동학농민혁명. 그것은 제국주의 침략이라는 시대적 난제를 온몸으로 끌어안은 동학농민들의 역사적 선택이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셀 수 없이 많은 연구 업적들이 쌓여 있다. 나 같은 말학(末學)이 그 논의에 함부로 끼어들 여지는 없다. 그럼에도 내 소감을 말하자면, 동학의 중심에는 소농(小農)이 존재했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다.

소유 재산은 두어 마지기의 논이 전부였다는 전봉준도 소농이었다. 김개남 역시 소농이었다. 제2대 동학 교조 최시형 또한 젊은 시절에 머슴살이를 거쳐 마을의 이장까지 맡은 가난한 독농가였다. 그들을 따랐던 동학농민군의 대다수도 물론 소농이었다. 동학하는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소농이었다. 당시 한국사회의 구성 또한 그러하였다.

전봉준의 ‘공초’(供招)를 끈이끈대로 받아들이는 학자들이 있다. 그들은 전봉준이 포교활동도 별로 하지 않았고, 휘하에 ‘접’(接) 같은 조직을 따로 거느리지도 않았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다. 전봉준은 이미 1892년부터 경향 각처에서 열린 교조신원운동에 깊숙이 관여하였다. 그때부터 그는 동학의 강경파 지도자로 부상하였다. ‘공초’에서 포교활동과 휘하조직의 존재를 숨긴 것은, 동지들을 보호하려는 그의

사려 깊은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봉준은 소농의 입장에서 동학농민혁명을 펼쳤다. 혁명 과정에서 등장한 ‘척왜양창의’(斥倭洋倡義)와 ‘보국안민’(輔國安民)이란 구호가 이를 증명한다. 그들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미곡을 일본으로 빼돌리는 지주들의 처사에 반대했고, 영국제 값싼 면제품을 마구잡이로 수입하게 만든 조정을 규탄했다. 동학농민군은 소농위주의 자급적 농촌공동체, ‘유무상자’(有無相資)의 토대를 지키고자 일어섰다.

어떤 이는 흥선대원군과의 관계를 운위하며, 동학농민군에게는 근왕적(勤王的)인 성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어불성설이다. 그때 전봉준과 함께 일어난 동학농민군은 위정자들이 함부로 밀어붙인 ‘개방정책’의 오류를 시정하려고 혁명을 일으켰다. 기회에 그들은 조선사회의 해묵은 낡은 폐단을 일소하고자 하였다.

동학의 여운은 길게 남았다. 나의 제4강은 그 문제를 검토하였다. 현대 한국사회는 개방만을 능사로 삼는 산업지상주의자들의 수중에 있다. 그로인한 농수산업의 위기와 환경오염 및 핵발전소 문제가 심각하다. 이를 해결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동학이 애써 발견한 ‘관계의 질적 전환’을 다시 숙고해보는 것은 어떠한가.

동학농민혁명부터 독립자금 모금운동까지



참여자 김두민의 증손 김생원

김생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본인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이신 김두민 증조부님의 증손 김생원입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장흥 토박이입니다. 저 역시 장흥에서 나고 자랐으며, 회진면 체육회장, 장흥 로터리클럽 회장, 장흥군의회 의원 등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증조부님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셔서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저희 김두민 증조부께서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군으로서 보은집회와 황토현 전투, 장흥 석대들 전투 등 동학농민혁명의 전반에 참여하셨습니다. 특히 장흥 석대들 전투 당시 일본군 신식무기의 화력에 밀려 패하고 해안가로 후퇴한 동학농민혁명군들을 덕도라는 섬으로 피신시키셨습니다. 이 덕도는 밀물 때는 육지에서 접근할 수 없으나, 썰물 때가 되면 수면아래 감춰져 있던 돌다리가 드러나 이를 통해 섬으로 건너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었습니다. 일본군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덕도는 어떤 곳보다도 가장 안전한 피신처가 될 수 있었고, 일본군에 포로로 잡히거나 죽임을 당할 뻔 했던 수많은 농민군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같은 마을의 윤성도라는 분은 풍선배를 띄워 죽도선착장을 통해 동학농민혁명군을 금당섬으로 피신 시키셨습니다. 이 덕도와 금당섬의 주민들 또한 동학농민혁명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피신한 동학농민혁명군 중 추가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동학농민혁명군에 협조했던 주민들 또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으니 이곳을 동학농민혁명의 고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증조부님께서 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기부하기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당시 명덕면장을 지내시던 증조부께서는 독립자금 모금운동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재산에 여유가 있어 모금운동에 참여하신 것이 아니라 피와 같은 눈 땀 여섯 마지기를 팔아 자금을 마련하셨다고 합니다. 면장의 술선수범에 감화되었던 것인지 명덕면의 주민 약 400여분도 함께 모금운동에 참여하셨다고 합니다. 풍족한 편도 아니었던 이 고장의 주민들은 금반지 은반지를 처분하고 한 줌, 두 줌 씩 쌀을 모으고 한 속, 두 속 모아둔 김을 내다팔아 마련한 돈을 기부하셨습니다. 언제나 그 분들의 구국정신을 생각하면 절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이러한 선조 분들의 정신을 기리고자 제가 장흥군

운동 참여자 후손들이 기념비를 세웠다



의회 의원으로 재직하였던 2006년에 장흥군에서 예산을 받아 신상리에 독립자금현성기념탑을 세우고 모금운동에 참여하셨던 120분의 성함을 새겨 넣었습니다. 지난 2007년에는 이 탑 앞에 모금운동 참여자 후손들이 기념비를 세웠는데, 비문을 이곳 마을 출신인 한승원 작가님께서 써주셨습니다.

증조부께서는 모금운동에 참여한 감사의 표시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부터 금상을 수여받으셨습니다. 이것을 작은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다 저에게 물려주셨는데, 최근 사촌형님께서 보관하시겠다는 요청을 하셔서 전해드린 상태입니다.

증조부님의 참여사실에 대해 어느 분께서 전해주셨을까요?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지금은 타계하신 작은아버지께서는 증조부님께서 동학농민혁명과 독립자금 모금운동에 참여하신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누군가가 작은아버지께 증조부님의 활동사항에 대해 알려준 것도 아닌데 스스로 자료를 찾아내시고 연구하셔서 증조부님의 활동사항에 대해 세세하게 밝혀내셨습니다. 심지어는 돌아가시기 바로 전 까지도 자료를 찾아다니실 정도였습니다. 저도 작은아버지께서 증조부님의 활동사항을 연구하여 밝혀내시는 것을 보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했고, 독립자금현성기념탑 건립을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자 유족신청을 어떤 계기로 하게 되셨을까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조사가 진행되던 당시, 제가 참여하고 있는 장흥동학농민혁명유족회에서 참여자 유족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신청사항을 확인해볼 결과 작은아버지께서 조사하셨던 정보가 참여자 유족으로 신청하기에 충분하였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으로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내년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개관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알고 계실까요?

네, 해당 기념관은 장흥지역의 동학농민혁명사, 관련유물, 장흥지역 전투를 지휘했던 지도자들에 대한 소개 등이 전시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쉽게도 저희 증조부님께서 활동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지만, 우리 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을 소개하고 그 정신을 이어나가기 위한 기념관이 설립되는 것에 매우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증조부님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증조부님께서 지역과 나라에 도움이 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셨던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시 독립운동에 참여하셨던 분들 중 다수가 동학농민혁명 당시 일어나셨던 분들이었습니다. 이 분들의 참여가 없었다면 독립운동이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

한 번 일어섰던 경험은 두 번, 세 번 포기하지 않고 구국활동을 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집안의 장남인데, 모임이 있을 때면 동생들과 자식들에게 증조부님의 활동사항에 대해 얘기 해주곤 합니다. 훗날 손주들이 장성하면 역시 증조부님에 대해 전해주려 합니다. 그만큼 가문의 영광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념재단에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기념재단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하고 선양하기 위해 활동하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후손들에 대해서 여러 방면에서 도움을 주기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후손들을 위해서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고인이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대우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써 후손들이 선조들의 참여사실을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국민들도 자연스럽게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선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추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것도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엄원이 담길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교수 **조경진**



Q 조경진 교수님 안녕하세요? 본인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교수로서, 공원계획 및 설계와 도시조경 프로젝트 기획을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현재 서울시 공원녹지 총감독으로 일하고 있으며, 마곡 중앙공원 총괄계획가로서 서울에 최초로 식물원과 공원이 결합한 공간계획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순천만정원박람회 마스터플랜 설계공모 PA와 배곧신도시 공원녹지 계획안 설계공모 PA를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Q 이번에 저희 재단에서 진행 중인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에 큰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에서 제가 맡아 진행한 일은 설계공모의 전문위원, 영어로 말하자면 PA(Professional Advisor)입니다. 전문위원의 역할은 초기 기획자로서 여러 추진위원분들의 생각을 잘 담아내어 좋은 설계안의 선정하는 일을 돕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12년 수립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기본계획안을 검토하여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계지침을 준비하였습니다. 좋은 지침은 좋은 설계를 가능하게 되는 기초적인 작업입니다. 또한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해주실 여러 분야의 심사위원을 모시는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Q 설계공모 중 교수님께서도 전문위원으로서 참여하셨는데요, 어떤 사항에 중점을 두고 기념공원 설계공모를 진행하셨나요?

전문위원으로서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백진 교수와 함께 기념공원 설계공모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새롭게 조성되는 기념공원이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철학을 잘 담아내는 건축과 조경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황토현에서 시작하여 전국으로 확산되었던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는 장소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이는 현재의 당선작에 잘 반영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Q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념공원의 필요성과 역할은 어떠한 것일까요?

우리의 땅은 산 역사의 장입니다. 산천 산하를 답사하다 보면 그 곳에서 벌어졌던 역사의 사건과 선조들의 기품 있는 정신을 마주하곤 합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은 박제화 된 기념공간의 틀에서 벗어나 동학농민혁명의 현장을 체험하는 장소이자 전국에서 일어났던 혁명의 역사를 집약적으로 경험하는 거점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간 아픔의 역사를 공유하는 장소이자, 시간과 대화하며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미래세대가 이곳에 방문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의 장소가 되어야 하며, 그러면서도 기념공원 자체만으로 특별한 매력이 있어 또 찾고 싶은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은 이런 공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롤모델이나 이미지가 있으실까요?

모든 새로운 프로젝트에 적합한 모델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각자 고유한 배경과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죠. 치열한 공부와 상상력 그리고 장인정신을 통해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다만 여러 기념공간에서 느끼는 경험의 구조는 유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깊은 감명을 받은 사례를 하나 소개해보자면, 베를린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의 어두운 지하 전시실에서 여러 희생자들이 남긴 일기 속 글들을 보며 한참동안 깊은 슬픔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새로 조성될 기념공원이 이처럼 방문자에게 가슴을 울리는 감동을 주었으면 합니다.

Q 설계공모 당선작에 대한 짝막한 평가 향후 기념공원 조성 시 개선방향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평을 인용하겠습니다. “당선작은 황토현이 지닌 역사를 치밀하게 조사하여 설계안에 반영하는 동시에 땅이 지닌 기억을 어떻게 현재의 풍경에 담을 것인가를 설득력 있는 계획안을 통해 보여주었다.” 심사평 전문이 워낙 잘 작성된 글이기에 독자 분들도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설계공모 홈페이지 www.1894.co.kr의 당선작 소개-심사평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당선작은 설계지침이 요구하는 방향에 잘 부합하였고 땅에 담겨진 역사와 황토현이라는 장소를 존중한 겸허한 설계안으로, 이러한 측면이 당선작의 미덕입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과정을 통해 공간의 완성도를 높이고 디테일이 뛰어난 작품이 완성되길 바랍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은 우리 모두의 엄원이 담길 장소입니다. 이전의 기념공간과는 다른,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공간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설계뿐만 아니라 시공단계까지 일관성 있게 프로젝트를 책임질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한 좋은 기념공원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 생각합니다.



유적지 1
전주의 동학농민혁명

동학농민군 전주입성비 완산철봉을 오르다 보면 정자가 위치한 등산로 좌우로 비석이 서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두 비는 각각 동학농민군 전주입성비, 동학전적지비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으며, 동학농민혁명군이 1894년 4월 27일 전주에 입성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전주성의 점령은 1893년에 작성된 사발통문에서부터 계획되었던 것이며, 무장기포 당시 포고문에도 언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894년 4월 23일, 장성 황룡촌에서 경군과 전투를



벌여 격파한 동학농민혁명군은 그 기세를 몰아 진주를 향해 진격했다. 그리고 전주성을 점령하기에 앞서 수백 명의 동학농민혁명군을 상인으로 변장시켜 전주성으로 투입시켰다. 이처럼 위장하여 투입된 동학농민혁명군과 성 내부의 협력자들에 의해 문이 열렸고, 동학농민혁명군은 전주에 무혈입성 하였다. 전라감사 김문현은 동학농민혁명군이 전주성을 공격해 오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미 달아나 있었으며, 토벌대장인 홍계훈은 동학농민혁명군의 꿈 무니만 쫓아다니다 이제 막 태인현에 도착했던 시기였다.

전주성을 점령한 이후에도 동학농민혁명군은 엄격한 규율을 유지하며 성내의 주민들을 안심시켰다. 특히 농민들에게는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 모내기 때를 놓치지 말라고 전했다한다. 이러한 동학농민혁명군의 노력에 의해 전주성을 점령한 날 오후에는 평소처럼 장내에 사람들이 왕래하였고, 성안의 주민들이 모두 화합하였다고 전해진다.

삼천 삼천은 동학농민혁명군이 전주성을 점령하기 직전 숙영하였던 곳이다. 장성에서 이학승이 이끄는 경군을 격파한 동학농민혁명군은 장성과 정읍 사이에서 2일간 숙영 후 4월 25일 정읍을 거쳐 원평으로 향했다. 이곳에서 동학농민혁명군은 효유문을 가지고 찾아온 이효응과 배은환의 목을 쳤다. 국왕이 보낸 군대와 전투를 치르고, 또한 국왕이 보낸 사자를 죽인 것을 통해 동학농민혁명군은 타협의 뜻이 없었으며 스스로의 힘으로 개혁을 이루고자 했던 뜻을 조정에 확실히 알린 것이다. 이후 초토사 홍계훈이 금구현에 도착하였을 때 동학농민혁명군이 삼천에 주둔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점과 동학농민혁명군이 4월 26일 원평을 거쳐 전주에서 30리 가량 떨어진 두정에 도착했다는 전주 가도사의 전보, 이동거리나 진격일정, 경로를 미루어 볼 때 동학농민혁명군이 4월 26일 삼천 혹은 두정 일대에서 하루 숙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4월 27일 아침부터 전주성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오전부터 서문·북문·남문 등을 공격하여 전주성을 함락시켰다.

용머리고개 용머리고개는 전주로 입성하는 관문으로 금구 쪽에서 전주로 진격한 동학농민혁명군이 삼천을 건너 점령했던 곳이다. 금구를 거쳐 27일 전주로 진격하던 동학농민혁명군은 용머리고개에 올라 태세를 정비하였다. 정비를 마친 동학농민혁명군은 곧장 전주성을 향해 돌격하였다. 충청도 부여의 유생 이복영은 자신의 일기 『남유수록』에 이때의 광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갑자기 용두현에서 붉은 깃발이 몰려오고 수천 명이 에워싸서 크게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백성들은 안심하고 상인도 안심하고 장사하며 멀리 가는 사람들도 걱정 말고 떠나가도 되니 모두 놀라지 말라’하고는 천천히 길게 앞으로 몰려나왔습니다.”

동학농민군의 뒤를 따라다니던 초토사 홍계훈은 다음날 정오경 경군을 이끌고 용머리고개에 도착하여 완산칠봉에 경군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성 안의 동학농민혁명군과 용머리고개, 완산칠봉 일대의 경군 사이에 치열한 공방전이 시작되었다.

전주성 서문지, 풍남문 풍남문은 전라감영의 소재지였던 전주를 둘러싼 읍성의 남쪽 출입문이다. 풍남문이라는 이름은 1767년 전주성 남쪽의 문이 화재로 인해 불타 1768년 관찰사 홍낙인이 재건하며 붙인 것으로, 이전에는 명건루라 불렸다. 풍남문을 제외한 나머지 문들은 일제강점기 당시 철거되어 현재 전주성의 문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이다. 한때 시대의 풍파로 인해 많이 훼손된 것을 1978년부터 3년간의 보수공사를 통해 옛 모습을 되찾았다고 한다.

이 풍남문은 동학농민혁명군이 전주성을 점령할 당시 공략하였던 곳이며, 전주성을 점령한 뒤 동학농민혁명군과 관군 사이에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던 장소이기도 하다.

전주성 서문지는 전주성의 서문이 있던 곳으로, 1767년 풍남문과 마찬가지로 화재로 인해 불타 재건하면서 패서문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며, 이전에는 상서문이라 불렀다고 한다. 서문은 풍남문과 마찬가지로 동학농민혁명군이 전주입성을 위해 공략한 곳이며, 이후 관군과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전주성 서문은 1907년 도시계획에 따라 철거되었다. 현재 서문이 서있던 자리에는 전주완산재향결우회 건물이 들어서 있으며, 건물 앞에 <전주부성서문지> 표지석이 설치되어 있다.



1 용머리고개
2 전주성 서문지



좌측은 동학전적지비 우측은 동학농민군전주입성비이다

황해도 지역 동학농민군

지도자 최유현

성균관대학교 교수 배항섭

최유현은 황해도 해주에서 활약한 동학농민군 지도자이자 1920년에 간행된 시천교역사를 지은 인물이다. 1894년 가을 황해도 일대에서도 많은 동학농민군이 기포하였다. 천도교회사초고와 동학도종역사 등에 따르면 이때 기포한 황해도 접주로는 임중현, 정중혁, 문학수를 비롯하여 동학도종역사를 쓴 송화접주 강필도(康弼道), 역시 송화접주인 방찬두, 장연의 정량, 재령의 오영창, 문화의 윤기호, 봉산의 김응중 배천의 변승명, 강령의 성재석 등이 있었으며, 최유현은 접주로서 오응선과 같이 해주에서 기포하였다.

황해도의 동학농민군의 활동은 1894년 가을부터 시작되었다. 9월 27일(양력 10월 25일)농민군 수만 명이 장연에서 일어나 해주성에 들어가 군기를 빼앗고 감사 김춘회를 협박하였다. 이때 각 촌의 엽수(獵手) 800명이 가담하여 함께 성문을 지켰다. 10월 6일에는 농민군 수만 명이 해주 서쪽 취야장에 모여 읍폐민막(邑幣民)의 시정과 동학 포교의 허용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해영(海營)에서는 민막은 지금 혁파하겠으나 동학은 조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엄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동학농민군은 곧 해산하였으나 임중현(林宗鉉)의 지휘 하에 다시 모여들어 수만 명의 규모를 이루었다. 이들은 강령을 습격하여 무기를 획득한 뒤 해주성에 진입하였다. 해주부에 들어간 농민들은 관가를 부수고 군기를 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영의 관공문서에 불을 지르고 중군과 관관 비장 등을 끌어내 구타하고 관찰사를 강제로 끌어내렸다. 이들은 11월 6일까지 해주부에 주둔하였다. 이들이 감영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임중현이 감사 자리에 앉고, 성재석을 강령현감, 이용선을 안악군수, 최득주를 해주 관관으로 임명하였으며, 그 밖에 중군, 병졸 등을 임명한 도록이 발견되기도 했다.

약 한달 동안 이들의 기세는 대단하였으나 곧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해주성이 함락되자 감영에서는 금천에 있던 일본군병참부에 구원병을 요청하면서 일본군의 황해도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진입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해주 감영을 점령하고 감사 행세를 하였던 임중현은 11월 6일 감사 정현석에게 사과한다고 하면서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동서로 나누어 해주성에서 철수하고 말았다. 임중현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은 11월 13일경 다시 취야장으로 집결하여 해주성을 공격하였으나, 일본군의 반격을 받고 참혹한 패배를 당하였다. 11월 23일에도 역시 취야장에 모인 농민군 2천여 명이 일본군 및 관군과 전투를 벌였으나 농민군 12명이 전사하며 패배하고 말았다. 다음날인 11월 24일 일본군이 해주를 떠나 연안으로 가자, 다시 수만 명의 동학농민군들이 해주에서 서쪽으로 30리 떨어진 안현에 모여 들었다. 이들 역시 25일 새벽 해주성의 포군 200명의 공격을 받고 퇴각하고 말았다. 그러나 농민군은 이에 굴하지 않았다. 이들은 11월 27일 해주성 남쪽과 서쪽에 다시 집결하였다. 산포수를 앞세운 농민군은 연안으로 갔다가 농민군이 재집결한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해주로 돌아온 일본군 및 관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당시 농민군 병력은 재령·신천·문화·장연·옹진·강령 등의 농민군이 합세하여 3만 명에 이르렀다. 전투는 5시간에 걸쳐 벌어졌으며 오후 2경에 끝났다. 이 전투에서 농민군은 20명이 전사하고 15명이 포로가 되었다. 이후에도 12월 7일과 19일, 22일, 23일에도 해주성을 둘러싼 농민군과 일본군 및 관군 사이에는 공방전이 이어졌다. 이어 1895년 3월에도 수차례에 걸쳐 해주 일대의 농민군과 일본군 사이에는 교전이 일어 났으며, 장수산성 농민군은 7월말까지 활동하는 등 황해도 농민군은 가장 늦게까지 일본군 및 관군과 대적하며 활동을 전개하였다.

동학농민혁명 이후 임중현이 종적을 감춘 것과 달리 최유현은 동학교단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1901년 그는 황해도에서 같이 활동하였던 원용일 등과 함

께 서울 등지에서 김낙철과 관련한 활동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1909년 3월에도 수도한 모습이 눈에 띈다. 그는 이때 아마도 시천교 측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이때 최유현은 김낙철, 김연국을 따르고 있었는데 김연국은 이미 1908년 초에 천도교 대도주를 내놓고 시천교 대례사로 떠난 경우가 있었다. 최유현도 아마 이때 시천교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용구가 죽고 송병준이 시천교본부 대주교를 차지하자 김연국은 시천교총부를 따로 설치하였다. 이때 역시 최유현은 김연국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후 김연국은 1918년 최유현으로 하여금 시천교역사를 짓도록 하였으며, 1920년에 발간하였다. 시천교역사는 박형채의 시천교종역사와는 다른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이용구, 송병준 계열의 시천교 및 시천교종역사는 친일적인 요소가 많은 것이었음에 비해 김연국, 최유현 계열이 쓴 시천교역사는 친일적 요소가 강하지 않았다.



사발통문의 진실회복을 위한 제언提言

중앙대학교 前객원교수 김수호

진실이 왜곡된 동학의 사발통문

사발통문(沙鉢通文)은 참여자의 성명이 사발(沙鉢:사기로 만든 둥근 그릇)모양의 원형으로 기록된 의결문서로서, 조선조 후기에 일부 사용되다가 임오군란 후에는 조정에서 사용을 금지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명확한 사료는 없는 실정이다.

현재 남아있는 유일한 사발통문은 1968년에 발견된 1893년 11월 전봉준 장군 외 19인이 작성한 동학의 사발통문이므로, 일반적으로 사발통문이라고 하면 바로 이 동학의 사발통문(이하 사발통문이라 함)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발통문에 관한 각종 역사관련 문헌(국어사전, 역사 교과서, 각종 역사 기록 등)에는 「사발통문에서 모든 관계자의 성명을 사발모양의 원형으로 기록을 한 이유는 주모자를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진실과는 너무나 다르게 왜곡이 되어 있음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의 주요 도화선이 되었던 사발통문의 역사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발통문에서 관계자의 이름을 사발모양의 원형으로 기록한 이유를 「주모자를 감추기 위한 것」이라는 기록은 언뜻 보기에는 주모자의 뛰어난 기발한 전략이라고 미화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학농민혁명 지도자를 폄하하려는 기만적 술책이 숨어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발통문의 역사왜곡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분석하여 진실회복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사발통문의 진실왜곡에 관한 분석

1) 사발통문의 주모자인 전봉준 장군은 이미 신분이 공개된 상태였다.

사발통문의 주모자인 전봉준장군은 당시 고부의 접주로서 사발통문을 작성하기 전에 이미 신분이 공개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고, 오히려 사발통문에 기록된 전봉준 장군 외 19인의 명단이야말로 공개해서는 안 될 고도의 비밀사항이었을 것이다.

2) 적발이 되면 주모자만 처벌을 받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 사발통문으로 인하여 만일 발각되어 체포가 되면 주모자만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 20인 전부가 똑같은 중형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주모자의 신분을 굳이 감추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3) 일부에서 제기한 진위논란은 사발통문의 가치만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현존하는 유일(唯一)의 사발통문에 대하여 근거 없는 이유 등으로 진위의 논란을 제기하는 학계 일부의 행위는 사발통문의 역사적 가치만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위이므로, 앞으로 공인된 진품을 제시하지 않는 한 반드시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사발통문의 진실

1) 작성의 배경

1892년 대왕대비 조씨의 인적인 조병갑 전라도 고부군수의 혹독한 탄압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동년 11월에 당시 고부의 동학접주였던 전봉준 장군 등의 동지들 20인(전봉준, 송두호, 정중혁, 송대화, 김도심, 송주옥, 송주성, 황홍모, 최홍열, 이봉근, 황찬오, 김응칠, 황채오, 이문형, 송국섭, 이성하, 손여옥, 최경선, 임노홍, 송인호)이 모여서 봉기의 당위성을 밝히는 격문과 함께 결의사항을 작성하여 각 리, 집강 등에 배포한 것이 현존하는 유일의 사발통문이다.

2) 사발통문은 평등사상을 실현한 역사적 유물이다.

동학농민혁명이 추구하려던 세상은 「사람이 하늘같이 대우받는 만인평등의 세상(인내천 사인여천)」이었으므로, 이 사발통문은 평등사상에 근거하여 모든 참여자의 성명을 무순의 사발모양으로 기록을 한 문서로서,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주요 도화선이 된 소중한 역사유물이다.

결어

동학농민혁명은 일본군의 무자비한 개입 등으로 인하여 비록 미완의 혁명으로 막을 내렸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이 혁명의 조직과 사상의 불씨는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국내는 물론 국외로 까지 전승이 됨으로써,

첫째, 현재 사발통문과 관련된 모든 역사문헌은 「동학의 사발통문은 평등사상에 근거하여 모든 참여자의 성명을 평등하게 사발모양의 원형으로 기록한 결의문서로서,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주요 도화선이 된 소중한 역사유물이다.」라고 반드시 정정을 해야 한다.

둘째, 현존하는 유일의 사발통문에 대한 근거 없는 진위논란은 동학농민혁명과 사발통문의 역사적 가치만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위이므로 반드시 자제되어야 한다.

향일독립운동과 상해임시정부 등의 중심세력으로 성장을 하여 조국의 광복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되었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의 주요 도화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발통문은 우리민족의 중요한 민주적 역사유물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반드시 진실을 회복하고 올바르게 보존을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하여는 지금보다 더욱더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해야 할 것이지만, 우선적으로 일제와 친일세력들이 저질러 놓은 우리의 식민사관적 역사부터 우리 스스로 바로잡는 특별한 조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발통문

구수내와 개갑장터의 들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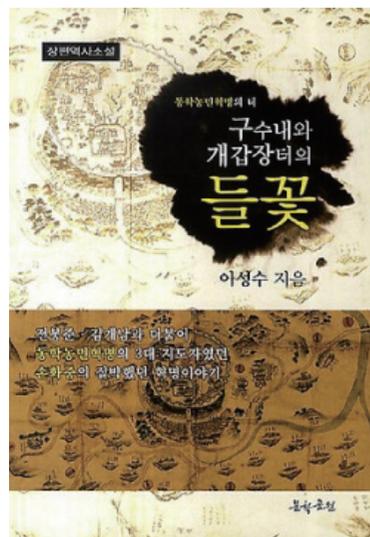
손화중 장군과 홍낙관

동학농민혁명이 120주년을 맞이한 2014년,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다룬 책들이 적지 않게 출판되었다. 그 중에서도 동학농민혁명에 새로운 시선을 던지는 소설이 이성수 작가의 『구수내와 개갑장터의 들꽃』이다. 지금까지 동학농민혁명을 다룬 소설들은 일반적으로 동학농민혁명군의 대장이었던 전봉준 장군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구수내와 개갑장터의 들꽃』에서는 송화중 장군과 고창의 지도자로 활동했던 홍낙관이 등장한다. 홍낙관은 고창지역의 대표적인 동학농민혁명군 지도자로 손화중 포의 선봉이자 주요 지도자였다. 그는 송화중 장군의 부대에 참여했던 다수의 천민(백정, 광대, 역부, 대장장이, 승려 등 하층민)을 집결해 천민부대를 이끌었으며, 전주화약 이후 집강소 활동에도 참여했다. 홍낙관은 우금티 전투에서 주력 동학농민혁명군이 대패한 뒤에도 나주, 장성 등에서 크게 활약했고, 이후 체포되어 전봉준, 손화중, 김덕명 장군과 함께 심문을 받았으나 처형은 면했다. 1899년에는 동생 홍계관과 함께 영학당 운동(홍덕민란)에도 참여했다고 한다.

동학농민혁명의 3대 지도자 중 활동사항이 비교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손화중 장군과 홍낙관을 전면에 내세운 점은, 지금까지 동학농민혁명 관련 작품 속 편중된 등장인물에 대한 스핀오프(spin off)로 작용하여 보다 새로운 시선으로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혁명의 과정

『구수내와 개갑장터의 들꽃』은 동학농민혁명보다, 혁명이 일어나기까지의 과정을 더욱 상세하게 담고 있다. 소설의 백미는 손화중 장군이 선운사 도솔암 마애불상에 올라 전설로 내려오던 비결을 손에 넣은 장면이다. 대나무를 새끼줄로 엮어 만든 계단을 오르는 손화중 장군은 층계를 오를 때 마다 자신이 진인(도교에서의 도를 체득한 자)이 아니라면 벼락을 내릴 것이며, 자신이 진인이라면 비결을 세상에 내놓게 해달라고 기도를 올린다. 마애불상의 명치에 들어있다고 전해지는 비결은 전라감사 이서구가 호기심을 가지고 손에 언고자 했으나, 비결을 집어든 순간 마른하늘에



서 날벼락이 치는 통에 첫 장만 열어보고 다시 봉해두었으며, 첫 장에는 '전라감사 이서구가 열어본다.'고 적혀있었다고 한다. 모여든 구경꾼들이 모두 겁에 질려 층계에 다가가기조차 꺼리는 상황에서 손화중 장군은 마애불상의 명치를 깨고 비결을 손에 넣었다. 비결을 손에 넣은 손화중 장군이 세상을 바꾸고 왕이 될 사람이라는 소문이 삼시간에 퍼져나갔고, 이는 수많은 백성들이 동학의 교인으로 입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손화중 장군은 이 사건을 통해 무장에서의 영향력을 공고히 했다. 이후 고부에서 탐학을 일삼던 조병갑이 재부임하는 사태에 전봉준 장군의 지휘로 고부봉기가 일어나며 본격적인 혁명의 시작을 알렸다.

민심의 양면

'났네 닳어 난리가 닳어 에이 참 잘되었지 그냥 이대로 지내서야 백성이 한 사람이나 어디 남아 있겠나' 소설에서는 사람답게 살기 어려운 시대에 사람답게 살아보고자 떨쳐 일어난 이들뿐 아니라, 이를 달가워하지 않았던 이들도 함께 조명하고 있다. 이덕만과 월명택으로 대표되는 이들은 부패한 관리와 한통속이 되어 점포에서 불법 무명잡세를 거둬들이던 객주와 일본인과 친분을 이어가며 매상으로 올리던 주막의 주인이다. 월명택은 비결을 얻기 위해 마애불상으로 오르는 손화중 장군에게 계단에서 떨어져서 병신이 되거나, 벼락을 맞아 죽어버리라고 저주를 퍼붓는다. 일본인들에게 곡식을 팔아 식량이 부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동학의 교인들이 쌀 매매를 방해하자 중간에서 챙기던 이문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앙심을 품은 것이다. 채만식의 소설 중 태평천하, 고마운 세상을 부르짖던 『태평천하』의 운영감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결국 이들은 관리의 변심, 일본인의 도주로 고립무원의 상황에 놓이고 만다.

새로운 세상

고부봉기를 도화선으로, 손화중 장군은 전봉준 장군과 함께 거사를 약속하고 무장에서 기포하여 동학농민혁명군이 본격적으로 결성된다. 이렇게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은 역사와 마찬가지로 미완의 혁명으로 끝을 맺지만, 홍낙관은 자신을 체포하려는 관군들에게서 도망치며 미래에 희망을 건다. '갑오년의 성과가 머뭇거리지만 백성들의 마음과 뱃속에 사무쳐 있다. 그것은 대대손손 이어지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느라 흘린 피와 땀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후손들이 사는 나라를 변영케 할 것이며 모두가 잘사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낼 것이다. 꿈꾸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백성에게는 결코 오지 않는 세상이다.' 홍낙관은 길이 아닌 길로 내달려간다. 그가 달려 나간 걸음걸음에 피어난 들꽃은 분명 현재까지도 이어져오고 있을 것이다.

기념재단

시발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기 6차 이사회



기념재단 2기 6차 이사회가 지난 11월 14일(금) 용산역 ITX특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이사회는 전차회의록 보고에 이어 의결 안건으로 2015년 정신선양사업 예산안, 재단 정관개정, 재단 직제규정 개정, 재단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보고안건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설계공모 결과보고, 원평집강소 국유매입 추진현황보고를 상정하였으며, 이를 논의한 결과 각 상정안건 별로 원안 혹은 수정 의결되었다.

이날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설계공모에 당선된 동심원 조경기술사무소, 우리동인건축의 대표들이 참여하여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의 설계방향에 대해 보고하였으며, 이시들의 보충의견을 기념공원 설계에 긍정적으로 반영기로 결정하였다.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지난 11월 13일(목)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했다. 이성일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하 7명의 도의원이 참여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기념관의 전시 내용,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기념공원 운영비 내역, 자료번역 자료집 발간, 자문위원회 운영, 황토 현전적지 운영에 관련한 질의사항이 이어졌으며, 재단에서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측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고,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및 수정기로 하였다.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 추진현황 보고회



지난 11월 27일(목) 대전 아드리아 호텔에서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 추진현황 보고회가 열렸다. 전국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관계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포럼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된 이번 보고회는 동심원 조경기술사 대표가 참여하여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설계공모 당선작을 설명했으며, 이후 정신선양 공모사업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다. 이후 신영우 충북대학교 교수의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의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한 초청강의가 진행되었으며,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절차 및 방법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 이후 재단에서는 오는 2월 모든 관계자가 모여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을 위해 재논의하기로 했으며,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이 조성되는 2017년 까지 기념일을 제정하고자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 임시 이사회 개최

전국동학농민혁명 유족회(회장 김석태)는 지난 10월 22일(수) 천도교 수운회관 회의실에서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행사 평가, 기념일 제정, 유족회의 사단법인 등록, 기념공원 내 묘역조성문제 등의 안건을 논의하였다. 김석태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장은 이 자리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제정에 대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 전국기념사업회, 천도교가 함께 논의하여 추진할 것임을 이사회들에게 밝혔다.



홍천 동학농민혁명 희생자 추념식

홍천문화원(원장 허기영)은 지난 10월 23일(목) 서동엽 홍천부군수를 비롯하여 각 기관 단체장이 모인 가운데 제120주년 동학혁명 희생자 추념식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자작고개에서 개최했다. 서석면 풍암리 자작고개는 홍천지역 지도자 차기석이 이끄는 동학농민혁명군이 관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여 800여 명의 전사자를 낸 강원도 최대의 전적지이다. 이날 기념식은 동학혁명 문화제와 백일장 및 사생대회, 서석면 체육대회와 함께 개최되어 많은 참여자들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뜻 깊은 행사가 되었다.



태안지역 동학농민혁명군 추모제

지난 10월 29일(수) 백화산 동학농민혁명군 추모탑 앞에서 제24회 태안지역 동학농민혁명군 추모제가 열렸다. 이날 추모제에는 한상기 태안군수, 박남규 태안군의회 의장, 김대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박남수 천도교 교령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추모제를 주최하는 동학농민혁명태안군기념사업회에서 편찬한 『독립운동가 문병석 지사의 생애』 출판기념식이 함께 열려 그 의미를 더하였다. 행사 중 최기중 동학농민혁명태안군기념사업회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동학농민혁명군의 인간사랑 정신을 역사의 나침반으로 삼아 동학농민혁명정신의 전국화 세계화 미래화를 향할 것'이라 전했다.



고창군, 오지영의 '동학사'에 대한 종합적 검토 학술대회

지난 11월 5일(수) 고창군과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은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맞아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에서 오지영의 '동학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제11회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동학사'에 대한 학술대회는 동학농민혁명과 동학농민혁명군의 행보를 새롭게 이해하기 위해 '동학사'의 작성경위, 서술내용에 대한 검토와 자료검증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동학사'의 편찬경위, '동학사'와 해방 이후 동학농민전쟁 연구, '동학사'의 동학농민전쟁 초기 전개과정, 집강소 및 집강소 시기 농민군 활동, 동학농민전쟁 이후 동학교단의 동향과 분화의 5개 주제로 오지영의 '동학사'를 고찰했다. 고창군에서는 이번 학술대회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를 진전시켜 동학농민혁명의 의의를 새롭게 구축하고, 고창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의의와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원 동학농민혁명의 발자취와 과제 학술대회

동학학회(회장 최민자)가 주관하고 남원시가 주최하는 동학농민혁명 제120주년 기념 학술대회 '동학의 글로컬리제이션 : 남원 동학농민혁명의 발자취와 과제'가 지난 11월 7일(금) 남원 춘양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는 남원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 연구하고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성찰함으로써 남원의 정체성 확립과 위상 제고에 기여함을 목표로 했다. 이화학 前동학농민기념재단 이사장의 기조강연으로 문을 연 학술대회는 1부로 임형진 경희대학교 교수, 신영우 충북대학교 교수, 이병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2부에는 조규태 한성대학교 교수, 조극훈 경기대학교 교수, 채길순 명지전문대학교 교수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으며, 마지막으로 3부에는 1, 2부의 주제발표와 토론에 대한 종합토론이 이루어졌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는 동학농민혁명사에서 남원이 차지하는 역사적 비중을 실증적으로 입증함으로써 그 위상을 제고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전했다.

남원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 문화제

지난 11월 8일(토) 남원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 문화제가 열렸다.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회장 황의동)가 주최한 이번 문화제는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기념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학생 글쓰기 대회도 함께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광한루 옆 주차장에서 동학농민혁명 당시 희생자들이 처형되었던 장소인 광한루원을 소개하는 표지석 제막식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사랑의 광장 무대에서 동학농민혁명군에 대한 추모공연과 진혼제가 펼쳐졌다. 진혼제 이후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학생 글쓰기 대회 시상식이 진행되었으며, 시상식에 참가한 김대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은 남원중학교 오미선양에게 금상을, 남원도통초등학교와 남원중학교에 각각 단체상을 시상하였다.



우금티 추모 예술제

(사)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회장 지수걸)는 지난 11월 9일(일) 공주 우금티 전적지에서 우금티 추모 예술제를 개최하였다. 이번 우금티 추모 예술제는 지역주민들이 우금티 전적지의 중요성과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숭고함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현대적 계승 방안의 모색을 목표로 하였다.

이날 행사는 금강풍물패의 길놀이로 시작으로 이걸재 소리한마당의 '동학천가', 공주대 놀이패의 '타는 목마름' 노래공연, 우금티 극단의 마당극 '다시 피는 녹두꽃' 공연에 이어 추모제가 진행되었다. 지수걸 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 이사장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널리 알리고 봉건주의와 일제침략에 맞서 싸우다 장렬히 산화한 영령에 대한 추모행사를 통해 명예를 회복하고 민족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충청남도는 지난 11월 10일(월)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동학농민혁명의 특성과 역사적 의미, 정신을 재조명하고 계승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갑오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 충남 동학농민혁명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와 향토연구자, 충남도민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신영우 충북대 교수의 '충청감영과 갑오년의 충청도 상황'에 대한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성주현 청암대 교수의 '내포지역의 동학과 동학농민혁명', 지수걸 공주대 교수의 '1894년 공주 대회전의 성격과 의미', 이병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의 '충남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과 활용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으며, '충남 동학농민혁명의 계승과 활용방안'을 주제로 한 종합토론으로 마무리되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되새기고, 우리 지역에서 벌어진 역사적 사건과 유·무형 유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고성산 동학농민혁명군 위령식

제120주년 고성산 동학농민혁명군 위령식이 지난 11월 11일(화) 고성산 동학혁명 위령탑 앞에서 열렸다. 고성산동학혁명군기념사업회(회장 고정표)가 주관한 이날 위령제는 여태성 하동부군수를 비롯해 김대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지역기관 단체장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위령제는 청수봉전을 시작으로 주문병송, 경전봉독, 동학혁명군 12개조 폐정개혁안 낭독 등으로 이어졌으며, 고정표 회장 외 참석자들의 추념사와 추모사 이후 동학혁명군 추모가를 합창하고 만세삼창을 하였다.

고성산 동학농민혁명군 위령제는 일본군의 내정간섭에 항거하여 고성산에서 일본과 맞서 싸우다 희생된 동학농민혁명군의 넋을 기리기 위해 매년 11월 11일 개최되고 있다.



전북교육청 동학농민혁명 교재 발간

전북교육청에서는 지난 11월 18일(화)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고 향토사에 대한 바른 역사관 정립을 목표로 동학농민혁명 교재를 제작하여 발간했다.

전북교육청은 교재개발위원회를 구성해 교재를 제작했으며, 고창군청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등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정확한 역사가 담긴 교재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동학농민혁명 교재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전개과정, 동학농민혁명의 가치, 유적지 안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학생들의 학습성취 수준에 맞춰 초등용과 중등용으로 구분해 제작됐다. 해당 교재는 역사 교과의 동학농민혁명 단원을 배우는 학생과 교사에게 보급해 참고서로 사용하게 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올바른 가치를 형성하고,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교재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정읍시·부안군 공동학술대회 개최

정읍시와 부안군이 공동으로 개최한 동학농민혁명 제12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지난 11월 28일(금) 전북대학교 박물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동학농민혁명의 발발과 전개에 대한 재조명'을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에는 김생기 정읍시장, 김중규 부안군수, 임기태 부안군의회 의장, 김대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신영우 충북대학교 교수의 '동학농민혁명 제120주년과 학술연구의 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 후, 조광환 동학문화연구소 부소장의 '사발통문에 대한 연구동향과 과제', 박준성 역사학연구소 연구원의 '백산대회 연구 현황과 과제', 성주현 청암대학교 교수의 '동학농민혁명 초기 전개과정과 논쟁점' 배항섭 성균관대학교 교수의 '무장기포와 무장포고문 연구현황과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주제 발표 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고부봉기와 무장기포, 백산대회가 연속선상에서 이해되어야 동학농민혁명의 초기 전개과정이 제대로 조명될 수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전주역사박물관, 동학농민혁명 특별전

전주역사박물관(관장 이동희)은 동학농민혁명 2주년을 맞아 사발통문의 원본과 동학농민혁명 목판화를 전시하는 특별전을 개최했다. 지난 9일(화)부터 27일(토)까지 19일간 진행된 이번 특별전은, 10여년 만에 사발통문의 원본이 전시되어 화제를 모았으며, '말목장터 감나무-파랑새는 온다', '피노리가는 길' 등 박흥규 화가의 작품 23점이 전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전주역사박물관 이동희 관장은 '사발통문이 문화재로 지정돼 있지 않은 것은 아쉬운 일이다. 동학농민혁명군의 후예들인 전북도민들에게 사발통문 원본을 보여주고자 어렵게 마련한 전시인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전주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 학술대회

지난 12월 15일(월)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전주정신과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가 열렸다.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이사장 이영호)가 주최한 이번 학술대회는 동학농민혁명을 기반으로 한 전주의 정체성과 정신의 정립을 목표로 하였다.

학술대회는 前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이화 이사장의 '동학농민혁명과 전주정신'을 주제로한 기조강연으로 시작하여, 정근식 서울대 교수의 '동학혁명의 사회적 기억 재구성', 김양식 충북발전연구원 충북학연구소장의 '지역정신 탐구와 동학농민군의 집강소 관민협치', 원도연 원광대학교 교수의 '전주 지역정체성과 동학혁명의 역사적 위상' 등 학술발표가 이어졌다.

이후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모두 참여한 종합토론에서는 동학농민혁명과 전주의 정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무안 동학농민혁명 희생자 합동 위령제

무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이사장 박석면)는 지난 12월 19일(금) 무안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무안 동학농민혁명 희생자 합동 위령제를 개최하였다. 위령제의 1부로 무안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한 '무안 동학농민혁명 역사성 고증 및 기념사업 기본계획 수립'의 용역 결과를 목포대학교 변남주 교수가 발표하였으며, 2부에서는 배종열 무안군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 김철주 무안군수, 이요진 무안군의회의장, 이병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김석태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의 추모사 이후 위령제가 열렸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극단 갯돌의 '해원상생 곳' 공연이 열렸다.



원평 구미란 전투 희생자 추모제

(사)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지난 12월 21일(일) 원평 구미란 전적지 마을회관에서 '원평 구미란 전투 희생자 추모제'를 개최하였다. 이날 추모제는 관련 단체장, 김제 시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본 추모제는 동학농민혁명 100주년부터 김제지역 향토사학자 故(고) 최순식 선생이 주관해 진행했으며, 2008년부터는 (사)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이를 이어오고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김대곤 이사장은 이날 추모사를 통해 '오랜 기간 방치되었던 원평 집강소를 기념재단의 주도하에 복원할 예정이며, 집강소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원평 구미란은 전봉준 장군의 부대가 우금티에서의 패배 이후 후퇴하던 중 전열을 가다듬어 전투를 벌인 곳으로, 이곳에서 많은 동학농민혁명 선열들이 희생되었다.



기념재단 동정

□ 신규임용

- 박용민 / 연구조사부 / '14. 9. 11.
- 장형석 / 기념관운영부 / '15. 1. 1.

□ 정년퇴임

- 김두한 / 기념관운영부 / '14. 12. 31.

□ 올해를 빛낸 얼굴들

- 〈동학농민혁명 제120주년 기념 유공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표창 수상자〉
- 이종찬 / (사)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 이정호 /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
 - 신영우 / 충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 조경진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 황정주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직원

〈연말 인문정신문화진흥 유공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표창 수상자〉
- 박아영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직원

〈동학농민혁명기념관 활성화를 위한

- 전북도지사 표창 수상자〉
- 김두한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직원

알려드립니다

웹진 '녹두꽃' 독자원고 모집안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김대곤)에서는 동학농민혁명 포럼 회원들을 비롯한 국민과 소통하고,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널리 선양하기 위해 여러분의 고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내 용 :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기,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방법,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나아갈 길 등 동학농민혁명 또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 분 량 : A4용지 1 ~ 2장 가량(11포인트, 줄간격 180%)
- 보내실 곳 :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djiori@1894.or.kr
우편송부 또는 이메일 송부

※ 송부 시 통화 가능한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심사를 통해 선정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법정기부금 기탁안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김대곤)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 9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았습니다.

법정기부금이란 이월결손금이 없는 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 기부금으로서, 기업 또는 개인이 특별한 관계가 없는 기관(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명가액 중에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격으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난 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손금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법정기부금은 「특수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정관」에서 정한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하며, 감독관청의 승인절차를 통하여 기부금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할 계획입니다. 재단에서는 법정기부금을 통해 관련 기업이나 후원자에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제혜택을 제공합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법정기부금 기부자 손비인정

- 법 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소득금액의 50%내에서 손비인정
- 개 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소득금액의 100%내에서 손비인정

동학농민혁명 기념가 공모안내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맞이하여 그 혼을 현재에 일깨우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동학농민혁명정신을 표현하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가'를 공모합니다.

- 공모주제
동학농민혁명 기념가
- 공모대상
전 국민(제한없음)
- 접수기간
2014. 5. 19(월) ~ 7. 18(금)
- 시상내역
대 상 1명 상금 5,000,000원(기념재단 이사장상)
우수상 1명 상금 2,000,000원(기념재단 이사장상)
장려상 1명 상금 500,000원 (기념재단 이사장상)
- 제출서류 및 제출물
- 응모신청서 1부
- 악보 3부 (A4사이즈, 16마디 이상, 2절 이상)
- 녹음된 응모곡(가사포함), 악보가 저장된 CD 1개
- 접수 및 문의
우편 및 방문접수 : 580-833.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문의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기념사업부
Tel. (063)538-2896 E-mail. djiori@1894.or.kr

※ 자세한 내용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www.1894.or.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포럼 회원 모집

문화체육관광부 특수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동학농민혁명의 자주·평등·개혁 정신을 오늘의 시대정신으로 계승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가치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동학농민혁명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國權)을 수호하기 위해 쓰러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 정신과 어제와 오늘의 현상을 통해 내일을 알고자 합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통해 사물과 세상을 바라보고자 하는 뜻있는 분은 '동학농민혁명 포럼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 ※ 동학농민혁명포럼 가입시 우대사항
 - 동학농민혁명 관련 학술대회, 세미나 등에 우선 참여권 부여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개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답사 우선권 부여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주최 전국기념대회 및 각종 행사 초대
 - 동학농민혁명포럼 회원간의 발표회 및 토론회 등 정보 교류의 장 마련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발간 서적, 각종 자료 등 무료 제공 등

- ※ 가입 방법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 상단 [포럼회원가입] 클릭
- ※ 문의 : 기념사업부 최경훈(063-538-2894, oasis@1894.or.kr)



웹진 '녹두꽃' 수신요청방법

발간사

주요사업
· 재단포커스
· 기획특집

칼럼 & 인터뷰
· 녹두칼럼
· 인터뷰 ① 발간 참여자 유족
· 인터뷰 ② 동행공간

동학농민혁명
· 본보기
· 바로알기
· 인물열전
· 유적지

소개합니다
· 독자투고
· 동학농민혁명 포스터 공모전
· 동학농민혁명 도서관

녹두꽃 소식
· 사발동문
· 전국 네트워크
· 알려드립니다

2014년은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2014. SUMMER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식지 (녹두꽃) 2014년 여름호(18호) 발행 2014년 7월 7일
발행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발행인 김대근 주소 전북 정읍시 덕안면 동학로 742 전화 063.538.2899
팩스 063.538.2898 E-mail 1894@1894.or.kr homepage www.1894.or.kr 제작 에이앤씨투비
본문에 실린 외부 장물자의 글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공식적인 담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 (녹두꽃)은 정간해(2014년 가을호)부터 이번호 까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계간으로 발행되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웹진 '녹두꽃'은 수신요청을 통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수신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djori@1894.or.kr로 수신희망 이메일을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